

우윳값 또 올라...커피 음료 인상 이어지나

내년 봄 공급 재계약 시즌...“가격인상 요인 설명 중”
“임금·물가 상승으로 음료 가격 인상은 예정된 수준”

올해 서울우유와 남양유업이 우윳값을 올리면서 조만간 우유를 이용한 카페 음료 가격이 줄줄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 서울우유로부터 우유를 공급받는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내년 봄 현재의 납품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우유가 이들 대형 카페 브랜드에 우윳값 인상을 요청하면 커피라테 등 음료 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일정 기간을 정해 두고 납품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가격이 당장 올라가지 않지만, 이들 업체에 가격 인상 요인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 상대방인 카페 브랜드 측이 우윳값 인상에 동의해야 실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테지만, 원두 다음으로 중요한 원료인 우유 수급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인상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스타벅스만 해도 우유가 들어간 제품으

로는 카페라테를 비롯해 카푸치노, 캐러멜 마키아토, 에스프레소 프라푸치노, 모카 프라푸치노, 리스트레토 비안코, 스타벅스 돌체 라떼 등 어림잡아도 10가지를 웃돈다.
스타벅스에서 팔리는 커피 중 이들 라떼 제품 비중은 전체 커피 음료의 15%, 개수로 따지면 연간 3천만 잔이나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커피 업계 관계자는 “우유업계가 어려운 점은 주지의 사실이고, 상생의 차원에서라도 우유 업체의 강한 요구가 경청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카페 브랜드 내부에서는 요구를 들어줬을 때 얼마나 원가 인상 요인이 생기는지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우윳값이 올랐다고

커피 가격을 인상하면 소비자들이 쉽게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윳값도 가격 인상 요인 중 한 가지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가장 큰 비용은 임대료와 인건비”라고 강조했다.
카페 브랜드들은 서울우유가 우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다른 납품 업체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우유는 2014년 기준 전국 5천693개 목장 중 3분의 1에 가까운 1천801곳에서 우유를 공급받고 있다.
연간 집유량도 73만7천여t으로 전국 221만여t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은 매일유업이나 롯데푸드 등 다른 업체들도 우윳값 인상 여부를 저울질하는 ‘눈치 보기’

에 들어가 우윳값 줄인상은 예정된 수준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가격 인상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푸드는 롯데 GRS가 운영하는 엔제리너스와 CJ푸드빌 계열 베이커리 푸레쥬르에 우유를 공급하고 있다.
롯데푸드는 우윳값을 올리면 이들 브랜드도 가격 인상 대열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앞서 서울우유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파리바게뜨는 이달 5일 흰 우유를 포함한 우유 제품 8종의 가격을 일제히 10% 이상 올렸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우유 제조사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다”며 “최근 제조사가 원유(原乳)가 상승 등을 이유로 공급가를 인상해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제지표

코스피	↑	2,092.63(+13.94)
코스닥	↑	693.67(+11.30)
원·달러·환율	↓	1,116.50(-4.50)
금리(국고채 3년)	↑	1.97(+0.01)

美 증시 강세에 코스피 ‘↑’
나홀 만에 2천090대 마감

코스피가 8일 미국 증시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94포인트(0.67%) 오른 2천092.63에 거래를 마쳤다.
2천090대 종가는 지난 2일 이후 4거래일 만이다.
지수는 31.28포인트(1.50%) 오른 2천109.97로 출발해 강세 흐름을 유지했다.
장중에는 2천120.88까지 올라 지난달 24일 이후 11거래일 만에 2천120선에 진입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 폭을 상당 부분 반납했다.
간밤 뉴욕증시도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안도하면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2.1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2.12%), 나스닥 지수(2.64%)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다. 이번 선거는 예상대로 공화당이 상원을 수상하고 하원은 민주당이 8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이원 부국증권 연구원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 전반에 호재로 작용했다”며 “다만 옵션만기일이어서 장 막판에 코스피의 상승 폭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천918억 원어치를 순매수하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천751억원, 2천299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4.05%), 기계(3.21%), 건설(2.93%), 섬유·의복(1.92%), 은행(1.58%), 종이·목재(1.53%) 등 대부분 업종이 강세였고 통신(-0.36%)만 약세였다.

오른 종목은 718개에 달했고 내린 종목은 131개였다. 47개 종목은 보합 마감했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거래가 매도 우위, 비차익거래는 매수 우위를 보여 전체적으로 3천811억원의 순매수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량은 3억2천만주, 거래대금은 5조8천억 원 수준이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11.30포인트(1.66%) 오른 693.67에 마감했다.

광주은행, 아이키움통장·적금 출시

아동수당 수령고객 대상...연 3.1% 금리 제공

광주은행은 최근 어린이 고객과 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금융 혜택을 더한 ‘아이키움통장’과 ‘아이키움적금’을 판매중이라고 밝혔다.
‘아이키움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고객과 만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가입할 수 있다.
우대서비스로 최근 3개월 아이키움통장의 평균잔액이 20만원 이상이면 당행 전자금융 타행이체수수료와 자동화기기 현금출금수수료가 각 월 5회씩 면제된다.
‘아이키움적금’은 1년제, 2년제, 3년제로 가입 가능한 정액적립식 적금으로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어린이고객 또는 부모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더한 상품이다.
가입금액은 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이며 만5세 이하 어린이고객(자녀명의)이 가입할 수 있다.
‘아이키움적금’ 기본금리는 1년제 연 1.7%, 2년제 연 1.8%, 3년제 연 1.9%이다. 가입 전월 1일부터 가입일까지 자녀 또는 부모 명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아동수당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연 1.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하여 3년제 적금 가입 시에는 최고 연 3.1%의 금리가 제공된다.
광주은행 이우경 영업추진부장은 “아이키움통장·적금은 소중한 아이들에게 미래를 위한 뜻깊은 첫 선물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고객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질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방우정청은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과 새해 인사를 전해 주는 '2019년 우체국연하카드' 총 8종(카드 7종, 엽서 1종)을 최근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우체국에서 선보였다.

“우체국연하카드로 마음을 전하세요”

전남우정청, 내년 황금돼지의 해 카드 출시

전남지방우정청은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과 새해 인사를 전해 주는 '2019년 우체국연하카드' 총 8종(카드 7종, 엽서 1종)을 최근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행운을 상징하고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

는 전통적인 문양이 담긴 연하카드는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 해를 맞아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다양한 돼지의 모습을 담았다.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발행되는 연하카드·연하엽서는 전국 우체국과 인터넷(www.epost.go.kr)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고급형(2종)은 1천500원이며, 일반형(5종)은 1천200원, 연하엽서(1종)는 500원이다.
또한 연하카드·연하엽서와 동일가격으로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 로고, 사진 등을 넣어 제작해 주는 ‘고객맞춤형연하카드’ 서비스도 제공된다.

넷(www.epost.go.kr)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고급형(2종)은 1천500원이며, 일반형(5종)은 1천200원, 연하엽서(1종)는 500원이다.
또한 연하카드·연하엽서와 동일가격으로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 로고, 사진 등을 넣어 제작해 주는 ‘고객맞춤형연하카드’ 서비스도 제공된다.
/윤규진 기자 jin2001@

이마트, 최저가행사... ‘6천원대 랍스터’ 선보

이마트가 개점 25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연중 최저가 할인 행사 ‘블랙이오’에서 캐나다산 랍스터를 선보인다.
이마트는 8일부터 일주일간 캐나다산 ‘자숙 랍스터(325g 안팎)’를 역대 최저가인 1마리당 6천98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기존 정상가(9천800원)보다 28.7% 싼

가격으로 물량 또한 역대 최대인 11만 마리를 준비했다고 이마트는 소개했다.
이마트 조선의 수산 바이어는 “늘어나는 국내 랍스터 소비에 따라 6개월간 준비로 행사를 기획했다”며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랍스터를 맛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24시

굿모닝

보석불가마

사우나

혈액순환촉진
각종노폐물배출!

첨단중앙로152번길 31

☎ 0507-1662-2207